

서평 <디스그레이스, 디스를 벗다>

아픈 이들과 함께 일어서기

우리는 성이 상품화되고 성이 자유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성은 TV와 인터넷 안에서 아름답게 포장하고 문을 열어 놓은 채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린다. 마음만 맞으면 자유롭게 성을 사고 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해자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치인, 전직 검찰의 총수인 법조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등 사회 지도층도 성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더욱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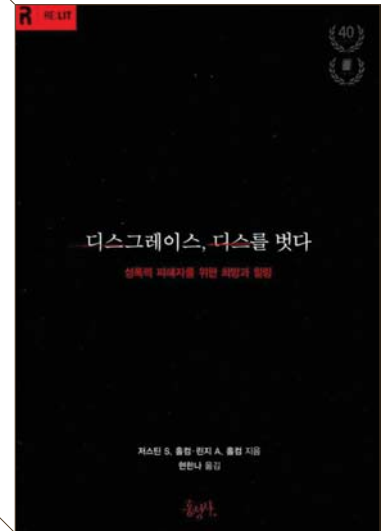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이며 학자이고 상담가인 저자들, 저스틴 S. 홀컴과 린지 A. 홀컴은 오랫동안 성폭력을 상담해온 목회 경험과 전문적이고 깊은 학문적 바탕 위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복음에 기초한 소망과 치유를 경험하고, 사역자와 피해자 가족,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성폭력으로 입은 피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크 드리스콜 목사는 추천사에서 “성폭력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해 희망과 도움을 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

저자는 우리가 폭력을 당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분명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이지만 고통 중에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또 마음속 깊이 수치심이 자리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은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2).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13).



이진영 현재 성결대학교 객원교수로 성결대 대학원에서 상담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수학교육(B.Sc.) 졸업하고, 성결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상담학과 석사(M.A.), 박사(D.C.C.)를 수료했다.

저스틴 S. 홀컴, 린지 A. 홀컴 공저
현한나 역 | 흥성사



이 책은 세 파트로 되어 있다.

파트1은 디스그레이스, 파트2는 은혜와 적용, 파트3은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1은 1장과 2장으로, 성폭력에 대해 진술하고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성폭력의 정의와 그 결과를 기술했다. 3장에서 8장까지의 파트2는 은혜의 적용으로 수치스러운 경험 가운데 은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거절감과 수치심, 왜곡된 자아상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죄책감과 분노와 절망은 성폭력을 당한 후 함께 몰려오는데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임을 설명한다. 파트3은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평자는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파트1. 디스그레이스

성폭력이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모든 성적인 행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개인의 삶과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현대사회의 법적 용어로 좁은 의미에서 강간을 뜻한다. 그러나 저자는 성폭력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30). 첫째, 명확히 이해

한 피해자들은 홀로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들이 당한 일을 ‘범죄’라고 여기게 되므로 사건이 더 많이 보고되고 드러난다. 셋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로 설 때,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더욱 배려받고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주어야 할 이들이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바르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다. 다섯째, 통계와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잘 모르고 성폭력 문제를 다룰 만한 지식이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저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보다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시선과 희생자로 낙인찍히는 것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9).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은 감정에 다가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감정이 생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1).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그들을 치유한다는 것이다(52-53).

파트2. 은혜와 적용

이 파트에서는 성폭력으로 나타난 6가지의 심각한 피해인 부인, 왜곡된 자아상, 수치심, 죄책감, 분노, 절망을 상담 케이스로 접근하며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자들은 용기를 내었고 저자는 수치스러운 과거 이야기를 책에 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한다. 이제 이 6가지를 간략하게 살펴해보겠다.

① 부인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주된 방법은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부인하고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것이다. 치욕스러운 경험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를 부인하거나 억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고 오히려 치료를 늦출 뿐이다(62). 치유되려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가 고통 가운데 임해야 한다(62)고 저자는 말한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어떤 악행이 저질러졌는지 고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평화를 새롭게 이뤄 가실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66).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고통을 나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다.

② 왜곡된 자아상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자아인식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스스로 멍청하고 무가치하며 순결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와 낮은 자존감의 징후를 보인다. 이것이 심화되면 자기비판이나 자기 증오, 자기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사건 중에 만족스러운 감정이나 육체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면 더욱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왜곡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은 더욱 심화된다(86-87).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수치심과 혐오심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을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 안

에서 본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사건으로만 가능하다(90).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주셨음을 의미한다(94).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성폭력을 겪고 스스로를 잘못 인식하게 된 이전의 정체성보다 훨씬 강력해진다(105).

③ 수치심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여겨 수치스럽고 더럽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고, 상처와 거절감으로 삶을 황폐화시킨다. 또 하나님이 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낀다(116-117). 그러나 피해자는 스스로에게 잘못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며 수치심과 죄의식을 분리해야 한다(118).

저자는 우리의 수치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모욕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셨다. 사역하시는 동안 내버려진 부정한 자들을 하나씩 만나 만져주셨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치는 다른 이들이 전가한 수치였다(125). 예수님은 마땅히 맛봐야 하는 기쁨을 치욕과 맞바꾸셨으며 고난과 수치와 치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승리자가 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수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④ 죄책감

저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신을 탓한다고 말한다. 죄책감은 정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온다(145). 죄책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장소나 시간에 잘못된 사람과 있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폭력을 유

발했다고 믿으면 죄책감은 더욱 심해진다.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이나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146).

저자는 성폭력 사건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은혜를 강구하지만, 대부분은 수치심과 벌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에 직면해 이를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삶을 대속물로 내려놓으셨고(마 20:28) 직접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되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롬 5:9-1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용납되며 죄가 없다. 내가 한 잘못과 실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며 사랑하신다(159).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죄책감 대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덮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⑤ 분노

저자는 성폭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죄이며 악한 행위이고 당연히 분노를 유발한다고 한다. 피해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일고 그 분노는 고통 때문에 더욱 타오르며 분노는 통제하지 못할까봐, 쉽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을 일으킨다. 성폭력으로 자라난 분노의 감정을 부인하면 억울함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저자는 성경이 분노를 무조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화가 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170).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화를 내신다(171). 그리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함께 분노하자고 부르신다(172).

성폭력 이론가들은 용서를 달갑지 않은 주제로 여기지만,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서는 피해자 상담에 매우 도움이 되며 성폭력적 삶을 지배하던 나쁜 영향을 줄여주고 생활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결혼생활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킨다(187).

⑥ 절망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절망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경험은 소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절망과 무기력 사이를 오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 침입하여 목적과 동기를 마비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욕구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195-196). 결과적으로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셔서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행했던 것은 끝나고 이제 소망이 생겼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은혜가 모욕의 자리를 대신하고 평화가 불안감을 떨치게 만든 것이다(20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210).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다(211).

우리 주변에서는 오늘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구원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망과 치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악은 오직 파괴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아픈 부분을 드러내 잘라내고 치유하신다. 이 책은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는 성상담에 관한 책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필요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